

광주FC가 쓴 ‘축구신화’

K리그 승승장구...아시아챔스리그 첫 진출

광주FC의 ‘아시아무대’ 진출은 기적이 아니라 준비된 자들이 보여준 광주 축구의 힘이다.

광주가 승격 첫 해 구단 사상 최초로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진출이라는 위업을 만들었다. 광주는 3일 광주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2023 38라운드 포항스틸러스와의 최종전에서 0-0으로 비겼지만, 전북현대와 인천유나이티드의 추격을 따돌리고 3위로 2023시즌을 마무리했다.

〈관련기사 18면〉

3위를 지킨 광주는 ACLE(1부리그) 플레이오프 티켓을 거머쥐었다. 4위를 했다면 2부리그 격인 ACL에서 ‘아시아무대’를 경험하게 되는 상황이었지만, 3위로 ACL의 높은 곳으로 간다.

전용구장이라고 하기에는 아쉬운 구장과 연습구장마저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 만들어낸 광주의 놀라운 질주다.

지난해 이정호 감독 체제로 새로 팀을 꾸린 광주는 K리그2 우승으로 1년 만에 승격에 성공한 뒤, 올 시즌 파이널A에서 구단 최고 순위(기존 6위)도 새로 작성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 ACL 꿈까지 이뤘다.

“훈련 마음껏 하고 싶다”고 하소연하며 구슬땀을 흘렸던 선수들의 노력과 지난 시즌 K리그2에서 일군 성과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채우며 광주 축구를 만든 이정호 감독의 열정이 만든 오늘이다.

광주는 ‘이정호표’ 공격 축구를 바탕으로 3위라는 성적과 함께 흥행도 동시에 잡았다.

‘야구도시’로 꼽혔던 광주지만 올 시즌 ‘광주FC발’ 축구열기는 뜨거웠다.

12월의 추운 날씨에도 포항과의 최종전에 5817명이 입장하는 등 올 시즌 홈에서 열린 19경기에 8만6090명의 관중이 찾았다. 평균 관중 4531명.

쟁쟁한 기업 구단들을 제압하고 3위까지 오르며 ‘광주 축구’ 자존심을 지킨 광주는 내년 시즌에는 리그와 ACL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게 된다.

‘광주FC’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면서 광주의 힘이 됐다. 이제는 광주시가 응답할 차례다. ‘아시아무대’에서 광주라는 이름을 널리 알리고, 상급까지 겨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시와 시민들의 응원과 지원이 있다면, 광주가 ‘스포츠크 도시’라는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ACL 진출을 지휘한 이정호 감독은 “나를 나를 믿었다. 선수들도 지난 시즌 K리그2에서 이뤘기 때문에 자신감만 심어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선수들의 훈련량과 훈련하는 것을 보면서 믿었다”며 “내년 시즌 목표를 지금 정하는 게 아닌 것 같지만 3위 보다는 잘 하고 싶다. 유지하는 것도 싫다. 위로 가고 싶다”고 더 높은 곳을 향한 질주를 예고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5·18민주광장 불 밝힌 성탄트리 2023 성탄트리 점등식이 3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광장과 분수대 주변으로 갖가지 성탄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내년 양육·혼인 세금 공제 늘어난다

자녀 2명이면 5만원 늘려 35만원

혼인시 증여재산 1억5천만원 공제

여아가 세제 지원을 통해 혼인·출산을 장려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내년부터 관련 세액공제가 늘어난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녀(8세 이상)를 2명 둔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이 35만원으로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난다.

첫째아이에 대해서는 15만원 공제액이 유지된다. 셋째아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해주는 것도 현행대로다.

이에 따라 자녀 4명을 둔 사람은 총 95만원(15만원+20만원+30만원+30만원) 공제를 받게 된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조손가구 지원을 위해 공제대상자를 손자녀까지 포함한 것이다.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도 대상과 최대지급액이 확대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이 종전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하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혼인·출산시 증여재산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됐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에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추가로 1억원이 공제된다. 혼인신고일 전후 4년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부부 합산으로는 3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한 셈이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또 법정시한 넘긴 예산안...재정난 지자체 ‘한숨’

여야, 쌍특검·국조 힘겨루기

재정 파탄 우려 광주시·전남도

내년 살림살이 지방채 발행 등 모색

여·야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면서, 역대급 재정난을 겪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 등 전국 자치단체의 속이 타 들어가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비롯해 그동안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었던 청년·일자·사회적 경제 예산 만큼은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국회의 여야 갈등으로 ‘예산 부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지역화폐와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R&D(연구·개발) 예산, 민전 및 재생에너지 예산,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 쟁점 예산을 둘러싼 입장차가 워낙 큰 탓에 자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 등을 무시한 여야간 ‘보복성 예산삭감’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도 나오고 있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고 헌법상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즉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올해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정부 예산안 원안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앞서 국회 예결위는 지난달 13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하고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왔지만,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 등을 둘러싼 ‘강대강’ 대립이 맞서면서 일부 금액 심사만 마무리하고 증액 심사는 손도 대지 못했다.

앞선데 달린 격으로 여야는 정기국회를 일주일 밖에 안 남긴 상황에서 예산안 갈등과 함께 속칭 ‘쌍특검’ 도입, 채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 등을 놓고도 극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도입안 등 속칭 ‘쌍특검’과 해병대 채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계획안에 대해서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다수 야당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

겠다고 맞서고 있다.

역대급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 등 자치단체들도 여야의 예산 정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예산 흐름에 따라 기쁨이나 어려운 내년 살림살이 계획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7일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부지갑세 등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한 전액 보전 또는 지방채 발행 이자 지원,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국가 직접 지원 사회적 경제 예산 부활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강 시장은 “세수 감소분은 지방정부가 감당해야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른 부자 감세로 발생한 세수 부족분까지 지방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내년 예산안 중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지방채 발행이 아니라 국제 발행 등 방안을 통해 국가가 보전해야 하며 최소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라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화순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즈라라

어린이들에게 호기심과 즐거움, 꿈 찾는 진로 체험!
키즈라라에서 30여가지 직업 체험을 만나보세요!



30여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직업체험관



꼬마허어로 슈퍼잭과 함께놀 수 있는
영유아 체험관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키즈라라 잔디광장



키즈라라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체험

- 즐거운 삶의 문화를 창조하는 항공훈련센터·뷰티살롱 등
- 미디어로 소통하는 TV 방송국·1인 방송국 등
- 호기심을 갖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공룡연구소·AI 로봇연구소 등
-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쿠키·치즈공방·식품연구소 등
-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서·경찰서 등

